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이 살렸다!

2/4분기 영업이익 3955억원으로 흑자전환 ... 올레핀 마진 회복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2/4분에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은 2/4분기 매출액이 16조85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955억원을 기록했다고 7월26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사업에서 성과가 있었고 SK종합화학의 우수한 영업실적이 흑자전환에 기인했다”며 “국제유가 급락으로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SK에너지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에너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정제마진이 떨어져 1/4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는 매출 12조7203억원, 영업이익 387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186억원 늘었지만 1/4분기보다는 3453억원 감소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국제유가에 연동돼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석유제품 시황이 악화돼 정제마진이 줄고 국제유가가 떨어져 재고 관련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종합화학은 매출 3조1373억원에 영업이익 2263억원을 기록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P-X(Para-Xylene) 등 아로마틱(Aromatics) 마진이 감소하고 정기보수 때문에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올레핀(Olefin) 마진이 개선돼 충격을 흡수했다.

SK루브리컨츠는 매출 6818억원, 영업이익 292억원을 달성했다.

SK이노베이션 단독 매출은 3132억원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1635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41.3%를 차지했다.

<화학저널 2013/07/26>